

해짐 > 친구·선생님·가족과 친밀해짐’ 순인 반면, 학부모는 ‘식물이나 자연에 대한 관심 증가 > 친구, 선생님, 가족과 친밀해짐 > 좋은 말 많이 하고 마음이 편한해짐’에 대한 기대가 컸고, 주민과 기관단체 종사자, 농업 및 도시농업관계자 등 학교 외의 사람들은 ‘식물이나 자연에 대한 관심 증가 > 좋은 말 많이 하고 마음이 편한해짐 > 친구, 선생님, 가족과 친밀해짐’ 순으로 나타나 정서적 안정을 더 기대하는 것으로 표 2-6과 같이 나타났다.

표 2-6. 텃밭 활동으로 인한 변화(기대효과)에 대한 인식 차이

구분	학생(참여여부)		학부모(참여여부)		주민(참여여부)		기관단체(제공여부)		농업도시농업관계자(제공여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식물에대한관심증가	106	22.8	71	44.8	33	30	18	33.3	31	36.9
친구선생님가족과더친해짐	50	10.8	29	18.3	18	16.5	3	5.5	10	11.9
공부에더잘집중할수있게됨	25	5.4	4	2.6	5	4.5	3	5.5		
좋은말많이하고마음편해짐	42	9	24	15.2	24	21.8	14	25.9	18	21.4
우리학교가자랑스러워졌다	35	7.5	4	2.6	1	0.9	1	1.9	2	2.4
내가크면하고싶은일이분명해짐	24	5.2			2	1.8	1	1.9	3	3.6
식생활습관이바뀌었다	30	6.5	13	8.3	11	10	7	13	7	8.3
학교와집의협력증가			1	0.6					2	2.4
신체활동이늘고건강좋아졌다	67	14.3	12	7.6	13	11.8	7	13	11	13.1
귀찮고힘만들었다	26	5.6								
별로변한것이없다	60	12.9			3	2.7				
합계	465	100	159	100	110	100	54	100	84	100

텃밭활동의 활용은 학부모의 경우 동아리활동이나 봉사활동에 활용하기를 희망하고, 기관단체 종사자는 상대적으로 인성지도나 상담·생활지도 등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농업·도시농업관계자는 정규교육과정에도 17.3%가 연계하고 있었으며, 프로젝트 학습(탐구, 실험), 식생활 교육 등에도 활용하였다. 교사 역시 정규 교과과정 연계는 15.7%인 반면, 동아리활동이나 봉사활동, 인성지도나 상담·생활지도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연계하고 있었다. 교사들도 주로 인성교육 등 생활지도와 가족교육 등에 대하여 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텃밭활동에 대한 지원요구는 기관단체와 농업·도시농업관계자는 교육과정에 정규과정 편성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프로그램 컨설팅, 교육적 효과 홍보, 교사연수 등을 희망하였음. 교사는 교재·교구·재료 지원과 정규 교육과정 편성, 교사연수,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등을 희망하였다.

바. 학교폭력 인지와 텃밭활동의 관계에 대한 인식

학교폭력에 대한 인지수준을 보면, 학교폭력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학부모보다 높았으나, 주민, 기관단체 종사자, 농업 및 도시농업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목격하거나 인지한 빈도가 높았다. 교사는 학교폭력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60.4%이며, 학교폭력 상담빈도는 매주 1회 이상이 18.7%이었으나, 대체로 월 1~3회 정도(66.7%) 수준이었다.

중학생이 현재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성적이라는 점은 대체로 비슷한 인식이나, 학생은 꿈(장래희망), 돈에 대한 고민이 많은 데 비해 부모(학부모)는 친구나 외모에 대한 고민이 큰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교사는 학생의 고민을 대체로 가장 근접하게 이해하고 있었지만, 친구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았으나 그보다는 외모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중학생이 돈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점을 지적한 비율은 낮은 편이었으나, 주민이나 농업 및 도시농업 관계자가 학부모보다는 상대적으로 중학생들의 고민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민의 참여, 농업 및 도시농업 관계자가 중학생과 좀 더 친밀하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